

# 스마트폰, 음성 이용해 사찰 재해 예방

## 사찰방재예측시스템 살펴보니

“현재 비상구역에 이상 행동이 감지됐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주십시오.”

12일 서울 봉은사 삼성각에서는 비상벨과 함께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이성진 파스텍 대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연신 화재발생을 알리는 안내문구와 경고음이 울렸다.

이성진 대표가 차분히 경고방송 버튼을 누르고 통화하듯 말을 하자 그 말이 그대로 삼성각에서 흘러나왔다.

12월 12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개최한 사찰방재예측시스템 시연회의 한 장면이다. 전통사찰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조계종이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938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첫해인 2012년에는 98개 사찰이 선정됐다.

봉은사 사찰방재예측시스템은 조계종 인증업체인 새천정보통신(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파스텍(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의 지능형 통합방재 예측시스템이다. 특히 이 지능형 통합방재 예측시스템은 전기 화재의 주원인인 아크(온도 5000~1만 5000도의 불꽃)를 감지한다. 아크는 스파크와 달리 벽 속에서 일어나며 누전차단기 등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전각 내부에서 열감 정밀 판독이 가능한 200만 화소급 CCTV와 온도와 습도, 연기를 감지하는 복합감지기, 적외선 온도로 작동하는 재질센서 등이 도입됐다. 각 전각에는 한

눈에 각종 상황을 볼 수 있는 지능형 분전반이 설치됐다.

봉은사 경비실에 마련된 관제실에 마련된 대형 모니터에는 연신 CCTV가 돌아가며 각 상황을 알리고 있었다.

관제실 위쪽 음향각에 화재 발생상황을 설정하자 관제실 대형 모니터의 전각 배치도의 음향각 부분이 붉게 표시됐다. 또 시스템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서는 화재발생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떴다. 스마트폰의 현장 버튼을 누르자 고화질 영상이 전송되

## 초고화질 카메라, 센서로 정밀 판독 화재 주원인 아크 감지, 원격 차단 비상·경제·생활 구역 상시 감지 절 부담금20%...올해 98사찰 선정

며 안내방송과 연계됐다. 하단에는 119, 경찰서,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에 바로 통보할 수 있는 버튼도 눈길을 끌었다.

## 사찰방재예측시스템은 사찰 건강검진

“현재 봉은사 범왕루 1층에서 과전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관제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서 시스템 앱이 설치된 이성진 파스텍 대표의 스마트폰에서는 실재없이 경고음이 울렸다. 겨울철 종무소가 위치한 범왕루에서 용량을 초과하는 전기 사용이 일어난 것이다.



이성진 파스텍 대표가 사찰방재 예측시스템 관제실 화면을 설명하고 있다. 화면에는 CCTV와 화재 상황 모니터링 화면이 표시되어 있다.

언뜻보면 귀찮을 만도 하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런 과정이 오히려 사찰을 화재로부터 지켜낸다고 강조했다.

전기 설비를 담당한 이승원 새천정보통신 과장은 “탐비실 등에 누전 등을 잡아내는 등 전기설비가 잘돼있는 봉은사만 해도 안전화에만 6개월이 걸렸다”며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위험들이 정밀한 시스템으로 인해 드러나는 과정으로 하나씩 원인을 제거해 나가면 화재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설치한 사찰의 평은 좋은 편. 특히 주지 스님 홀로 있거나 상주인원이 작은 사찰일 수록 시스템 활용도가 높다.

이성진 파스텍 대표는 “주지 스님이 홀로 있는 음성 가습사의 경우 스님께서 출타 시 사찰 상황을 바로 알 수 있어 안심

된다”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사찰방재예측시스템을 구축한 사찰은 미미하다. 12월 10일 기준으로 준공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조계종 사찰은 올해 사업 목표의 50% 수준인 41개에 불과하다.

이유는 20%인 자부담에 대한 사찰 측의 부담감. 전각이 많은 봉은사는 사업비 중 1억원을 부담했다.

박희승 조계종 문화부 차장은 “아직 시스템의 유용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찰 홍보를 통해 시스템 필요성과 활용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조계종은 시공업체와 함께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궁예가 출가한 사찰 최초 발견

### 중부고고학, 14일 발굴결과 발표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가 머리를 깎고 출가했던 통일신라 사찰이 최초 발견됐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중부고고학연구소(소장 김부중)는 12월 14일 강원도 영월 흥교사터 주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흥교사(興敎寺, 이전 사찰명 세달사)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문헌기록에서 보이는 궁예(弓裔, ?-918)의 초창기 세력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변이 방치된 상태였다.

문화재청 긴급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발굴에서는 당시 사찰 관련 건물지 10여 동을 비롯해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의



영월 흥교사터 발굴현장

기와 조각, 청자 조각 등 다량의 유물이 발견됐다.

연구소 측은 조선시대 건물지도 확인돼 흥교사의 중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흥교사는 통일신라 때부터 오랜 기간 영월지역의 중심 사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록도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강릉 굴산사지서 선방자리 첫 확인

### 중원문화재, 13일 발굴결과 발표

신라시대 구산선문 중 사굴산문의 분산이었던 굴산사지에서 선방 흔적과 함께 고려와 중국 요나라 간 교류관계를 밝히는 명문기와가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범)는 13일 강릉 굴산사지(江陵 ？山寺址, 사적 제448호) 발굴조사 현장에서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2년도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결과 조사구역 내에서 총 7개의 건물지와 담장지, 계단, 보도시설과 배수로, 다리(石橋), 디딜방아 시설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방형조석 건물지(정면 5칸, 측면 2칸)와 북쪽의 대형 건물지(정면 6칸, 측면 4칸)를 중심으로 동·서에 긴 행랑지가 확인됐다. 중원문화재연구소는 “이와 같은 건물지



강릉 굴산사지 발굴현장

의 배치와 내부 온돌시설들로 볼 때 조사구역은 굴산사의 승려들이 생활했던 승방지(僧房地)와 참선 등을 위한 선방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天慶三年(천경삼년) 명 기와가 추가로 발견됐다.

중원문화재연구소는 “이 명문와를 통해 고려와 요나라 간에 활발한 교류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문명대 교수,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수상

### 학술·연구 분야 수상자로 선정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사)가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학술·연구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2월 5일 2012년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은 문화유산 보호 관리에 공로가 큰 관계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문명대 교수는 《한국의 불화》, 《한국조각사》, 《한국불교미술사》, 《석굴암》 등 수십 권의 전문저서와 400여 편에 이르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우리나라 불교조각사 및 불교회화사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한국 미술사 정립과 후학 양성에 앞장서온 서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반구대 암각화를 발견했으며, 지난 1993년과 1994년 2차례



걸쳐 러시아 연해주 지역 발해 유적지에 대한 러시아, 북한, 대한민국 3국 공동발굴 조사 책임을 맡아 총괄했다. 또 지난 2002년에는 한국미술사연구소 주관으로 고대 인도지역인 파키스탄 간다라에 대한 해외 발굴, 세미나 및 학술 교류를 통하여 국위선양에도 기여했다.

이밖에도 문명대 교수와 함께 김정동 목원대 교수가 학술·연구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보존·관리 분야에는 임동조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부회장과 윤봉택 서귀포시 공무원이, 봉사·활용 분야에는 정의연 남해역사연구소장이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 2025년 황룡사 9층탑 복원한다

### 경주 남산 암각화 기반 10분의 1 축소 모형 제작, 예산 2500억원

신라 선덕여왕 14년 경주에 세워진 황룡사(皇龍寺) 9층 목탑의 최종 복원안이 확정돼 축소모형이 만들어졌다. 이 모형탑을 토대로 문화재청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경주 황룡사지에 79.2m 높이의 목탑을 복원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건축조영연구소 장현덕 교수팀은 지난 8월부터 황룡사 9층목탑 재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최종복원안이 확정됐으며 2월부터 10분의 1 모형제작에 들어간 상태다.

복원 모형은 가로·세로 3.4m 길이의 바닥면 가운데 심주(心柱·중심기둥)를 포함해 65개의 기둥이 세워지며 4면 7칸 구조로 만들어진다.

층마다 마루가 깔리며 층과 층 사이엔 탕비어 있는 암층(暗層)을 만들어 층격을 방지한다. 현재 10개월 동안 진행된 부분

은 2층 높이로 모형 완성은 2013년 말로 예정돼 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12년(643년) 자장(慈藏) 율사의 건의로 2년 만에 지어졌다. 9개의 층은 신라 주변 9개 나라를 뜻하며 신라가 불국토이며 경주가 그 중심임을 의미한다. 1238년 몽고 침입으로 전소돼 당시 건축 방식이나 설계 방식 등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모형탑의 외형은 황룡사 옛 터가 보이는 경주 남산 옥룡암 부근 부처바위(탐곡 마애조상군)에서 발견된 9층 탑 암각화를 바탕으로 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이번 모형탑이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실제 탑의 1대1 복원 작업을 2016년부터 10년간 진행한다. 복원사업 예산은 총 2900억원으로 이중 1500억원이 목탑 건설에 사용된다.

노덕현 기자

## 영주 부석사, 의상 화엄사상 학술대회

### 12월 22일, 부석사 설법전서

화엄사상연구원(이사장 근일)은 12월 22일 오후 2시 영주 부석사 설법전에서 제 7회 의상 화엄사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화엄사상과 연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상현 동국대 사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필림 동국대 연구교수의 ‘초기불교 상좌부의 연기설’, 신규택 연세대 교수의 ‘화엄의 법계연기설’, △김도공 원광대 교수의 ‘통

일신라 화엄연기사상의 수용 양태’ 등이 발표된다.

또 토론자로 임승택(경북대), 이자람(동국대), 장진영(원광대), 이상욱(동국대), 석길암(금강대), 유정업(원광대) 박사가 나선다.

화엄사상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시대의 갈등과 문제들을 진지하게 조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4)633-3464

노덕현 기자

## 설법·화술

###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대외포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대내예행】**

- 종합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특수인도】**

- 자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소 : 본 연구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설법연수원 회장 우물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선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물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 (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종교)위원  
 사)한국선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 한국 설법 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 2012년 동계정진법회 안내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보림선원 서울선원에서는 2012년 동계정진 법회를 실시합니다. 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셨습니다. 재가자는 생업에 종사하고 혈연을 돌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짜내어 공부해야 합니다.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거사공부의 공부방편입니다. 특히 이번 정진에는 백봉선생님의 육성설법과 녹취집을 교재로 하며, 아울러 일심행 서울선원장의 법문과 함께 학인들과의 개별 면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12년 12월 28일 (금) 오후 8시부터 2013년 1월 1일 (수) 오전 12시까지
- 내 용 : 참선, 백봉선생님 설법, 선원장 법문과 면담
- 주 제 : 예불송 반야심경 선문연송
- 장 소 : 보림선원 서울선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33) 선릉역 7번 출구 나와 200미터(3분 정도 거리) 커먼그루나무 좌회전, 오른쪽 두번째 빌딩 2층
- 회 비 : 1일 2만원 (참석기간에 따라 자유로이 납부가능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010-8751-6611 / 02-3452-3033
- 준 비 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개인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참석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공부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합장

## 불자님들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 지키기 위한 전통 뜸, 침술, 한약 대특강

『동양의학방송국』 이사장이신 덕운스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한 일환으로 불자님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19일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대강당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강의일정

- ▶ 오후 2시 ~ 4시 : 한방약초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약차 및 한약재 강의)
- ▶ 오후 4시 ~ 6시 :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 (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회 비 : 각 과목당 월 15만원 (불교인 30%할인)

□ 문 의 : 02)3487-2311

### 강 사 약 력

- 덕운 스님 법계 : 대덕 / 중국 한의사
- 박영자 한약사 한의학 석사, 의과학 박사 / (사)대한한약사회 여한약사회장 / 저서 한방차 다이어트